

수박축제에서 가야문화까지 이어지는 함안 이해하기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함안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로는
삼철민속줄다리기, 함안낙화놀이,
아라제, 함안수박축제,
치녀뱃사공가요제, 에코싱싱,
함안독방마라투어 등이 있다.



가야문화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아라가야(阿羅伽倻)였던 함안군에서 수박을 소재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체 2만 8천 세대, 6만 7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함안군은 군 차원에서 볼 때는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수도권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함안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함안은 아라가야의 유서 깊은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고장이며, 경남의 중심지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마산 창원 배후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적혀 있다. 사실 수도권에서만 살아온 필자에게 함안이라는 곳은 정확한 위치는 물론 지역의 구체적인 특성도 거의 모르는 상태였는데, 수박축제를 18회나 개최하였고 가야문화권에 속하여 그 유산이 남아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함안은 삼한시대에는 변한에 속한 변진안야국

(弁辰安耶國)에 속해 있었다가, 가야시대에는 6가야 중 아라가야(阿羅伽倻)에 포함된 곳이었다. 삼국시대에는 범흥왕 때 신라에 병합되어 아시랑군이 설치되었으며, 경덕왕 16년(757년)에 함안군(咸安郡)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1979년에 가야면이 읍으로 승격하고, 현재 1읍 9면을 이루고 있다.

함안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로는 삼철민속줄다리기, 함안낙화놀이, 아라제, 함안수박축제, 치녀뱃사공가요제, 에코싱싱 함안독방마라투어 등이 있다. 물론 몇몇은 동일한 시기에 개최된다. 오늘 함안의 축제로 다룰 것은 함안수박축제이다.

이를 위해서 수박생산지로서 함안의 위상을 간단히 살펴보자. 함안에서 생산되는 수박은 전국 생산량의 11%, 경남 생산량의 36%를 차지한다. 남강과 낙동강변의 기름진 충적토와 동서 간의 폭이 29km, 남북간의 길이가 30km로 겨울철 햇빛조임이 좋고 눈(폭설)피해가 없는 온화한 기후가 수박생산에 좋은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함안에서 수박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약 2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출하되면서 겨울 수박 8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도 기준 1,800여 농가에서 1,900여 톤을 생산해서 700억 원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고, 다양한 기능성 컬러수박(씨 없는 수박, 유색계 수박) 생산의 본고장으로서의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함안수박은 2007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 상품으로 인증을 받았다. 지형적으로 동서가 길어 일조량이 많은 함안군의 남강과 낙동강변 기름진 충적평야에 수박을 재배하여 1~5월에 수확되는 함안수박은 당도가 높고 수분, 비타민 A 함량이 많으며 육질이 치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박은 암수 한그루로 꽃은 5~6월에 연한 노란색으로 피고 잎겨드랑이에 1개씩 달리며 화관은 5개로 갈라진다. 수박의 원산지는 남부 아프리카로 알려져 있고,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재배되었다고 한다. 서역을 거쳐 비슷한 시기에 고려와 중국 송나라에 전해졌지만 원래 사막에서 자라던 작물이기 때문에 고려 후기인 13세기 말에 수박이 한반도에 전해졌어도 조선 초기까지는 널리 재배하지 못해서 이때만해도 수박은 대단히 귀한 과일로 간주되었다.

또 워낙 수박이 귀하다 보니 정치적 정략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수박을 빌미로 부관참시를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 연산군 때 사헌부 관원 김천령이 그에 해당한다. 연산군은 “내가 일찍이 중국의 수박을 보

고 싶어 했는데 (김)천령이 강력하게 주장해 막았다. 임금이 다른 나라의 진귀한 물건을 구하겠다는데 신하가 어찌 감히 그러다고 말하는가. 천령을 효수하여 전시하고 그 자식을 종으로 삼으라.”라고 명령한다. 이미 죽은 김천령을 또 죽이라고 한 것이니 무덤을 파내어 죽은 사람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의 형을 받은 것이다. 연산군일기 10년의 기록인데 김천령을 부관참시한 까닭은 폐모 윤씨의 복위와 얽힌 갑자사화와 관련이 있지만 명분은 수박을 꼬투리로 삼았을 만큼 수박은 대단한 과일이었다.

정조 때 정약용이 수박 재배 농민의 어려움이 담긴 시를 남겼는데, 이것으로 당시 수박의 가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호박 심어 토실토실 떡잎 나더니/밤새 덩굴 뻗어 사립문에 얽혔다/평생 수박을 심지 않는 까닭은/아전 놈들 트집 잡으 시비 걸까 무서워서라네.”¹⁾

수박이 일반인들이 쉽게 맛볼 수 있는 흔한 과일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듯하다. 수박은 50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분포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일반재배는 물론 시설원예를 통한 연중재배가 이루어지고 품종이 우수하게 개량되었음은 물론 씨 없는 수박도 생산되고 있다.

수박은 체내에 섭취한 영양소를 운반하여 생체 내 모든 화학 반응의 매체가 되는 수분을 전체의 90% 이상 함유한다. 또한 시트룰린(citrulline)이라는 물질이 있어 이노작용을 도와 신장병이나 당뇨병에 좋고, 리코펜 성분이 함양되어 있어 암 예방에

1) 윤덕노의 음식이야기, 2011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함안의 수박축제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우선 식전행사로는 풍년농사기원제, 수박왕 선발대회(수박아줌마 선발 등), 우수농가 시상식 등이 있다. 전시·홍보전 관련 프로그램은 우수농산물 전시, 새로운 품종 전시, 수박품 평회, 수박조각전, 수박화분 전시 등이 있다. 경연대회로는 수박 트럭에 빨리 신기(한국기록원 등제), 수박품평회, 수박요리경연대회가 있다. 이외에도 이벤트 행사로 수박축구, 수박씨 멀리빨기, 수박 빨리먹기, 수박 무게·당도 맞추기, 수박퀴즈 등이 열린다. 부대행사로는 수박 특별판매장 운영, 무료 주점, 돼지고기 시식전, 수박화체제공 등이 있다. 축제 일정은 매년 4월 중순 경에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수박이 출하되는 지역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아라제와 병행해서 치르면서 각각의 축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함안은 일찍이 6가야 중의 맹주국이었던 아라로 그 얼과 슬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아라제라는 이름의 축제를 수박축제가 벌어지는 즈음에 동시에 개최하고 있다.

‘6가야’란 전기 가야연맹을 구성한 여섯 개의 소국을 가리킨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수십 개의 부락국가가 차츰 확대되면서 부족국가를 형성하여 6가야로 발전하며 가라(伽羅, 加羅), 가락(加洛, 駕洛) 등으로 불린다. 6가야란 금관가야(金官伽倻; 지금의 김해), 아라가야(阿羅伽倻; 지금의 함안), 대가야(大伽倻; 지금의 고령), 소가야(小伽倻; 지금의

고성), 고령가야(古寧伽倻; 지금의 상주 함창읍), 성산가야(星山伽倻; 지금의 성주)를 말한다. 가장 먼저 탄생한 금관가야가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다른 가야들이 맹주국(盟主國)으로 삼았다. 532년 금관가야가 신라에 멸망당하면서 가야의 주도권은 대가야로 넘어갔다. 대가야는 약 500년간 계속되었다. 6가야는 500여 년 동안 존속하였지만 삼국처럼 중앙집권국가로서 발달하지 못하고 연맹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전성기의 가야연맹 세력은 매우 강하여 신라를 위협할 정도였으며 일본에도 진출하여 문화를 전하였다. 일찍부터 철기문화가 발달하여 낙랑, 대방 등 한나라의 군현과 일본에 철을 수출하였으며, 농업기술이 발달한 6가야는 신라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었다. 한나라의 영향을 받은 가야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다.²⁾

함안의 아라가야는 42년부터 559년까지, 517년 동안 지속되었던 나라이다. 함안의 도항·말산리고분군은 안라국(아라가야)의 중심지였던 가야읍에 위치하며 찬란한 가야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적이다. 안라국 왕들의 무덤으로 생각되는 100여 기의 대형 고분들은 높은 곳에 열을 지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1,000여 기의 중소형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 고분군의 출토품은 동래, 경주, 일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6세기 경의 안라국이 남부가야의 중심국으로서 주변국들과 교섭하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안라국의 경제는 남강 연안의 평야지대를 기반으로 풍부한 농

2) [출처] 육가야 [六伽倻] | 네이버 백과사전

수박의 이란 하나가 수박의 역사와 수박의 가치를
 머물러 있지 않다고 그 가치를 확장하여 함안군의
 함안군의 역사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장기적인 전략의 주
 요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판
 단된다.



업생산력이 1차 기반으로 되었으며, 가야연맹의 중심이자 당시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허브였던 구야국의 배후에서 가야 내륙의 교역을 중계하기도 하고 마산 진동 일대를 영역하에 넣고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직접 교역을 하기도 했다.³⁾

이러한 아라가야의 역사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은 함안박물관을 방문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이러한 아라가야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시작되었던 아라제는 군민 단합대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가야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은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없다. 현재는 수박축제, 아라제, 가요제 등이 군민의 날을 즈음하여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함안군의 역사문화적 자원이 아직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리적 상품으로 등록된 수박을 주요 소재로 한 ‘함안수박축제’로 함

안이라는 지역이 알려지고 이로 인해 역으로 함안의 역사적 사실들과 중요성도 알려져서 지역의 대외 이미지가 구축되는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박이라는 하나의 농산물이 농산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가치를 확장하여 함안군의 역사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장기적인 전략의 주요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박에서 수박축제로 그리고 그것이 아라가야의 아라국 역사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신기하기까지 하다. 지역의 특산물과 역사적 정체성이 보다 더 효과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somi5475?Redirect=Log&logNo=150106696472>]

3) 위키백과